

광주시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행안부 주관...전국 최다 '6년 연속 수상' 쾌거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벤치마킹 잇따라

광주시의회가 행안부 주관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수상으로 전국 최다인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제도 개선에 따른 지방의회 성과를 정리하고 의정 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9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전국 최초 365일 24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사례로 본선에 진출,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미란 시의원이 직접 사례 발표를 맡아 대상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야간 및 휴일에 문을 여는 아동병원이 없어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방의 열악한 소아·청소년의 진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발의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개소로까지 이어졌다. 지역에 꼭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아동 의료서비스를 설계하고 시행했다는 점에서 경진대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조례를 근거로 광주시가 지난해 9월부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운영한 이후 지난 10월까지 2만5천명이 진료를 받았다. 광주의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지역의 아동과 부모로부터 호평은 물론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광주시의회(의장 신수정·왼쪽 세 번째)가 행안부 주관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아 전국 최다인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시의회는 전국 첫 365일 24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사례로 본선에 진출,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미란(왼쪽 세 번째) 시의원이 사례 발표를 맡아 대상을 수상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어린이들의 실질적인 복지 수준을 높이는 '광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가 전국의 벤치마킹에 이어 전국 경진대회에서도 최고의 평가를 받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현장 체감도가 높은 의정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선경기자



진도경찰, 어르신 범죄·교통사고 예방교육

진도경찰서 근내파출소는 "최근 근내면 둔전리 마을회관을 방문,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범죄·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은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개정된 도로교통법 등이 안내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무단횡단·음주운전 하지 않기 ▲오토바이·다륜형 원동기 탑승 시 반드시 헬멧 착용 하기 ▲보행 시 우측 통행하기 ▲이른 오전 어두울 때 밝은색 옷입기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이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 관련 퀴즈를 문답식으로 진행, 정답을 맞춘 어르신들에게 헬멧, 예코백, 아광 지팡이, 파스, 칫솔 등을 선물해 참여율과 교육 효과를 높였다. 임진영 진도경찰서장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범죄·교통 안전 활동을 통해 어르신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기자

목포 북항파출소 '국민 안전 지킴이' 역할 특출

해경청 '연안안전 관리 우수' 선정...시설물·소통창구 'QR함' 설치 등 호평

"해양주권을 확보하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 북항파출소가 해양경찰청 주관 '2024년 파출소 연안안전 관리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7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해경 파출소는 치안 수요에 따라 A, B, C등급으로 구분되는데, 북항파출소는 B등급으로 전국 B등급 파출소 중 우수사례로 뽑혔다. 해양경찰청은 연안사고 예방 활동을 활성화하

고 해양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 해양경찰 파출소를 대상으로 연 1회 '파출소 연안안전 관리 우수사례'를 평가하고 있다. 북항파출소는 국민친화형 연안사고 예방 활동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인명구조 장비함, 과속방지턱 등 안전관리 시설물을 설치했다. 차량사고 방지를 위해 전기차 소유자 대상 소화용품 나눔행사를 열고 차량 추락 상해를 가정해 실제 차량 이용 구조훈련도 실시했다.



또 목포지역 행사, 아동센터 등에서 주민 1천 200여명을 대상으로 연안안전교실을 열어 심폐소생술, 생존수영을 교육하며 해양 안전문화 확

산을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 주민으로 이뤄진 순찰대 '북항 BTS (Bukhang Threat Saver·북항 위협 지킴이)'를 운영해 민·관이 함께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나섰으며, 새로운 민원 소통창구인 '바다소리 QR함'을 설치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했다. 이 밖에도 유관기관과 빈틈없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어선 무상점검 서비스 협업, 합동 해안가 정화작업, 합동 선박 점검 및 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파출소 직원들이 의기투합해 국민 편의 증진에 노력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연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농협 곡성군지부, 대봉감 수확 일손돕기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는 7일 "전날 곡성군 오폭면에 위치한 다분화가정 농가를 찾아 대봉감 수확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실시된 일손돕기에는 농협 곡성군지부와 곡성농협 임직원 및 고향주부모임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또한 농촌지역 환경 보호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를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캠페인을 진행했다. 방현용 곡성군지부장은 "바쁜 수확철 대봉감 수확에 일손을 보태준 곡성농협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기자



제1회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 수상자 6명 시상

전남도는 여수의 아픔을 넘어 평화와 희망을 상징하는 최고의 문학상 도약을 목표로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을 제정, 7일 동부청사에서 열린 첫 시상식에서 소설 부문 이경호씨 등 6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은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아픔을 문학작품으로 승화하고 여수 사건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3년 전남도 조례에 근거해 제정됐다. 여수사건을 주제로 한 문학상은 2022-2023년 여수시와 순천시에서 각각 실시했으나 상의 훈격을 높이고 유족의 화합 및 여수사건 전국적

공감대 확산에 힘쓰기 위해 올해부터 도에서 통합 운영하게 됐다. 지난 8월까지 현상 공모해 시·소설 분야 저명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예심과 본심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 결과, 시 부문 최우수 1명과 우수 2명, 소설 부문 최우수 1명과 우수 2명 등 총 6명을 선정했다. 소설 부문 최우수 수상자 이경호씨는 2천만원의 시상금과 상패, 우수 수상자 강민정·오연수씨는 500만원의 시상금과 상패, 시 부문 최우수 수상자 박복영씨는 1천만원의 시상금과 상패, 우수 수상자 박찬희·김성신씨는 500만원의 시상금과 상패를 받았다. /김재정기자



광주경제청, 서울서 미래모빌리티 홍보·투자유치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7일 "전날부터 3일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열리는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INVEST KOREA SUMMIT) 2024'에 참가해 광주 미래모빌리티산업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4'는 매년 열리는 외국인 투자홍보 행사로, 이번에는 해외투자자, 선도기업(엔지니어링), 주한외교사절 1천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미래차,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전을 비롯해 투자상담, 신기술 세미나 등 다양한 투자유치 콘텐츠가 진행된다. 광주경제청은 미래모빌리티 홍보전시관을 운영, 미래차국가산단 신경계 비전과 소부장특화단지, 광주의 다양한 모빌리티 지원시설 등을 소개하고 기아자동차·광주글로벌모터스·지역 자동차 부품사들을 홍보하고 있다. 또 기업 네트워크, 빛그린산단 현장 시찰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박선경기자



광주 장애인양궁팀 김옥금 선수, 기부금 전달

광주시 장애인양궁팀 소속 김옥금 선수가 7일 "근육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에 써달라"며 광주시근육장애인협회에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2025세계 (장애인) 양궁선수권대회' 홍보대사이기도 한 김 선수는 지난해에도 근육장애인협회에 나눔 기부를 실천한 바 있다. 김 선수는 "근육장애인들이 조금이나마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 나눔을 실천한다"며 "그동안 받은 사랑과 응원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김 선수는 30년 전 근육 위축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우울증을 겪었으나 주변의 권유로 2013년 양궁에 입문해 대한민국 장애인양궁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2022 항저우장애인아시아인게임' 혼성 단체전 금메달과 여자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했다. /박선경기자

'차산업 활성화' 전남농기원, 한국차학회 공로상

전남도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가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차학회 제30주년 기념식에서 차나무 신품종 육성 및 다양한 차(茶) 제품 개발을 통해 차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 공로상은 차(茶) 산업 품질 향상과 기능성 연구에서 이룬 성과뿐만 아니라, 지역 차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차산업연구소는 차 품종 개선 및 기능성 차 연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차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지역 특화 차 품종의 개발과 차나무의 질병 저항성을 강화하는 연구, 다양한 기능성을 갖춘 차 제품 개발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국내외 차산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최정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장은 "이번 공로상은 연구소의 모든 연구진이 차산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전남 차산업을 지역 농업과 연계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정기자



담양 창평면, 창평고 학생 등과 '플로깅 캠페인'

담양군 창평면은 "최근 '깨끗한 창평 만들기'를 위한 플로깅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평고등학교와 사회단체, 공무원 등 2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평시장, 국밥거리, 창흥학당 주변 등 5개 구간으로 나눠 걸으며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플로깅(Plogging) 캠페인은 '담양 천만 관광 시대'에 걸맞은 청정한 슬로시티 창평을 만들고, 주민 기초 질서 지키기 문화를 형성하기 위

해 마련됐다. 플로깅은 '줍는다'는 뜻을 가진 스웨덴어(Plocka upp)와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주변을 산책하거나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뜻한다. 이만기 창평면장은 "깨끗한 창평 만들기를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결혼

▲박정숙씨 장남 백종진(남해화학 전기기사)군, 니중국(오룡철물·공구 대표)·양남희씨 장녀 행요(고창식품 산업연구원 연구개발실 연구기획팀 연구원)양=10일(일) 낮 12시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7 까사디루체웨딩컨벤션 3층 안절로홀. (062-710-4000, 010-3610-8703)